



<주님의 세례>, 지오토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212.736.8500(EXT 355, 384)

www.stfrancisk.org/email-stfrancisk.org@gmail.com
사무실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목)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5:45 아래 성당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ofmichael@hanmail.net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지도수녀 김도경 헬레스틴(투스 파코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ohanleosb@gmail.com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이사 42,1-4.6-7

제2독서: 사도 10,34-38

복음: 루카 3,15-16.21-22

가톨릭 성가 입당: 481

봉헌: 1

성체: 500

파견: 479

◆ 화답송



(후렴) 주님이 당신 백성에 - 게 강복하여평화를 - 주시리 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러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러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말쭙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 하느님”

김 신부, 삼성동 본당 신부, 주임 신부, 교수 신부…… 등 나를 부르는 많은 호칭들이 있다. 그 가운데 ‘우리 신부님’이라는 말은 정말 듣기 좋은데, 내가 누군가의 세상 속에 받아들여졌다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우리 엄마, 우리 애, 우리 선생님, 우리 신자……”라는 말처럼.

하느님도 혹시 ‘우리 하느님’이라는 호칭을 좋아하지 않으실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배시기를 보내며 점점 하느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들은 정작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원하면서도 하느님을 멀리했다. 그런 이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왕과 예언자들을 통해 위로와 구원을 약속하셨다. 왕과 예언자가 백성들의 ‘우리’가 되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하느님의 도움을 기다렸다.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말이다. 하지만 하느님이 직접 오셨다. 이제 하느님이 그들의 ‘우리’가 되었다.

‘예수님의 세례’는 하느님에게서 당신의 구원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 손수 당신의 백성과 함께 ‘우리의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보여준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 신부’와 먹거리를 나누고 삶을 나눈다. 힘겨울 때 도움을 청하며 웃기도 울기도 한다. ‘우리 신부’는 ‘우리 신자’를 위해 무조건 달려간다. ‘우리 신부’가 그 정도라면 ‘우리 하느님’은 어떠하실까?

나와 너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는 시대여서인지 더욱 ‘우리’가 간절해진다. 이웃과 하느님께 조금만 내 공간의 문을 열어드리는 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

◆ 전례봉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1월 13일	홍민철 안젤로	노승후 아우구스티노	홍지혜 클로틸다	임유진 라차로	이예현 크레센시아	진은영 박지영	이미진 김하나	민완준 민덕미 김은희 양미숙 김영희 박신희 신정목 이지훈
1월 20일	김영희 안나	이규완 안토니오	이미숙 안나	박기목 알버트	민재인 소화테레사	조성자 황경숙	신정목 오윤서	양미숙 김승애 이지연 박신희 유정옥 유기호 민완준 민덕미

◆ 성경 통독 안내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느낌입니다. 관절이 아파 힘들게 살고 있는 나에게 하느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집에서도 딸과 함께 매일 한 시간씩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누이가 개신교 권사이기에 말씀에 능한데 비해, 자신이 늘 부족해 기초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통독을 통해 많은 용기를 얻어 갑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난 뒤에 제출한 짧은 소감문들 중의 일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한 번은 읽어보아야지...라고 다짐해보지 않았던 교우들은 없을 것입니다. 주일미사 때나 다른 기회에, 성경이야말로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다들 그런 다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보면, 불과 며칠 되지 않아 이미 하루 종일 성경 한 번 읽어보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은 걸?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읽어보아야겠어.’ 이런 경험들을 한 두 번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자신감도 떨어지지요. ‘나는 열심히 신자는 아닌 것 같아. 성경도 한 번 제대로 통독하지 못했으니 말이야.’

성경을 읽기는 정말로 어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읽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실패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 적힌 책이지만,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의 표현과 사고방식이 녹아든 책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경을 읽다보면 왠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져, 결국은 마음이 성경을 읽는 눈을 따라가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각 권들의 개관과 주제를 마음에 담아 둔 채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에는 그러한 위기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매주 본당에서 준비하는 자료들이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운.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원도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중식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Sam Ahn
NEWSTAR
NewStar Realty 부동산
(론도, 빌딩, 매매, 리스, 사업체)
(M)201-294-4510 (T)212-967-4242
smahn@newstarrealty.com
16W 32nd St. #702, New York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corcoran
real estate
David Son
david.son@corcoran.com
917-613-7305

동양보험
Property & Liability Wholesale Brokerage
이은경 헬렌 Licensed Broker
212-683-9393
16W 32nd St. Suite705 New York, NY

메디케어/시니어 플랜전문
가입변경 처방 약 추가혜택, 롱텀케어 무료상담
Licensed Insurance Agent
Jane Min 민재민
(929)888-3030
Jane@usboh.com 카톡문의 @usa메디케어

Sae Woong Rho NEW YORK LIFE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Licensed Agent-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OLYMPIA **올림피아 여행사**
OLYMPIA TOURS & TRAVEL
항공권(대한항공 대리점), 고국 관광, 유럽/남미여행, 유람선, 신혼여행 등
박옥영 로사리아
212-695-6699, 718-224-9477
www.olympiatourusa.com 1270 Broadway #302, New York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아그네스
646-808-7322

Kyani
알래스카 야생블루베리와 홍연어 주원료
모든 성인병, 암, 아토피, 당뇨, 심장질환 외에 탁월
효과를 건강하게, 염증제거, 자연영양공급
이클라우디아
917-484-11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WEST 8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12pm-9pm

JM JAKE MOVING
917.450.8389 NY
NJ **201.300.7881**
손님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포장이사 • 타주이사 • 귀국이사 • 학생이사
서정숙 야고보 jakemoving77@gmail.com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F-1 I-20 발행)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FL New York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Email Marketing
대한인쇄
T. 212. 971. 0212 / 268. 2776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인공지능 투자자
2017년 베스트 셀러!
권트
윌스트리트 인공지능의 지열한
전쟁 이야기
반디북US, 고려서적, 리더북스에서 절찬 판매 중
문의- **관용진** 바로로
yjp.kwon@gmail.com 646-831-8031

◆ 정 기 모 임

➤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친교실 = 다미아노 홀 / 성당 밖 좌측 20m)

- **연령회**가 오늘 10시 40분에 아래성당에서 시작합니다.
☞ 11시에 고 조화장 안나님을 위한 연도가 있습니다.
- **성모회**가 오늘 11시에 교육관 4호실에서 있습니다.
- **요셉회**가 오늘 11시에 2층 컨퍼런스룸에서 있습니다.

◆ 공 지 사 항



➤ 2019년도 사목회 임원

사목 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남)사목 부회장	박기목 알버트	전례 분과장	백이백 아오스딩
(여)사목 부회장	김애희 테클라	경로 분과장	임영애 스텔라
총무	임노엘 루카	교육 분과장	박정호 로사
재무	백승훈 야고보	선교 분과장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남성 분과장	유기호 베네딕도	사회복지 분과장	이지연 안나레지나
여성 분과장	유정옥 유스티나	청년 분과장	홍민철 안젤로

➤ 성경 공부 일정

신부님반 (수) *1월 휴강		
주일반	오후1시~2시30분	(13,27일) 프랜시스 룸 (20일) 아래성당

➤ 한국학교 등록

https://manhattan.co1.qualtrics.com/jfe/form/SV_5na7jL2bd9nvPsp

➤ 성가대 단원 모집

하늘처럼 성가대에서 함께 주님을 찬미할 새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문의 : 최인식 세례자요한(917.342.1517)

➤ 2019년 올드레아 신년교례회- 데 끌로레스!

일시 : 2019년 오늘 오후 4시(미사와 만찬)
장소 : 뉴저지 마돈나 성당
(345 Whiteman St. Fort Lee, NJ)
티켓 : 20불
문의 : 올드레아 간사

➤ “건강한 영성적 삶을 위한” 성장 세미나 참가 안내

일시 : 2월 17일(주일) 오후 2:00(미사 있음)~
18일 (월) 오후 7:00(1박 2일)
장소: Marian Shrine Retreat House
(174 Filors Lane, Stony Point, New York 10980)
*시작 모임장소 : 락클랜드 성당의 이태석 신부 기념관
지도단 :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회 지도신부 및 사제단,
Dr. Christina Kim.PhD, 봉사팀
인원 : 50명 / 신청 마감 : 2월 4일(월) / 참가비 : \$180.00
참가대상 : 건강한 영성적 삶을 생활하고 싶은 분들
준비물 : 성경, 묵주, 필기도구, 기도서 등
신청방법 : 본당 성령 기도회
문의 : 이은경 헬렌(917.921.9619)

➤ 본당 신부님의 Renew & Rebuild Donation 감사 인사

My Brothers and Sisters,

I want to thank you for helping us achieve our goal of \$1,022,000 for the Renew and Rebuild Capital Campaign.

The Korean Community’s contribution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helping us arrive at that goal. The money that was given will help us with major repairs that need to be done in the three buildings that make up St. Francis Parish.

Please be assured of my prayers for you during this New Year of 2019.

Fr. Andrew Reitz, OFM
Pastor



➤ 2019년 성지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파티마, 프랑스 루르드(3개국)”
일시 : 2019년 9월9일(월) - 9월19일(목)(10박 11일)
순례지 : 마드리드-톨레도-아빌라-알바 데 토르메스-
살라망카-파티마-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레온-
로올라-루르드-사라고사-몬세라트-바르셀로나
참가경비 : \$ 2,900 선착순마감 : 25명 예약금 \$500
문의 : 성당 사무실

“성경 맛들이기 - 마르코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는?

마르코 복음서는, 마태오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으로 예수의 말씀과 활동에 관해 처음으로 쓰여진 복음서로 다른 복음서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감추어진 ‘메시아 비밀’이 예수의 행적과 십자가 죽음, 부활 안에서 서서히 밝혀지는 생생한 예수 사건의 증언록이다.

저자?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의 주교 빠빠야스(60-130년경)가 ‘베드로의 통역을 맡았던 마르코는 베드로에게 들은 내용을 충실하게 기록했다’고 말한 것과 신약성경에 나온 말 등(사도 12,12.25 ; 필레 1,24 ; 콜로 4,10 ; 2티모 4,11 ; 1베드 5,13)을 근거로 바오로의 협조자요, 베드로의 통역이던 마르코가 복음서를 집필했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편의상 마르코를 저자로 부를 뿐 누가 복음서를 썼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히브리어와 아람어, 유대인의 풍습과 이방인의 풍습을 잘 알고 있음을 볼 때, 해외 문물을 익힌 해외 유대계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다.

집필 연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13장의 내용에 비추어, 기원 후 70년경으로 보고 있다. 유대인들은 로마제국의 압제에 맞서 독립전쟁을 일으켰으나(66년-70년경) 실패하고, 70년에는 예루살렘마저 함락된다. 이 본문이 예언인지 아니면 일어난 일에 대한 보도인지에 따라 전후로 조정되고 있다.

독자?

팔레스티나가 아닌 외국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며 쓰여졌다.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리스어로 그 뜻을 풀이하였고(3,17 ; 5,41 ; 7,11.34 ; 15,34 참조) 유대인들의 관습과(7,3-4 ; 14,12 ; 15,42) 팔레스티나 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1,9 ; 11,1). ‘내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 (11,17)이라 하고, 시로페니키아 여인(7,28)이나 백인대장(15,39)을 신앙인의 모범으로 내세우는 등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래아 지방에서 활동하시다가 점점 유다 지방으로 자리를 옮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마르코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였으므로, 우리가 통독을 할 때에는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의문을 간직한 채 읽는 것이 좋다. 이런 의문을 간직한 채 마르코 복음을 읽다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띈다. 기적을 행하시거나 마귀를 쫓아내신 다음에 계속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남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다(메시아 비밀 사상).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순간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이다.

우리들은 마르코 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 미 사 봉 헌

● 열미사

김병준
이태묘, 이영우
김귀숙 로사
정현술
황준호 스테파노
조화장 안나
김규동 안토니오
민경하, 경복순

● 냉미사

김용자 아녜스, 민덕미 안젤라
경재순 가밀라
강건대 마리아
노운 요셉 가정
이상경 엘리사벳
이상민 베드로
이로잔 캐더린
김광욱 미카엘
이영애 레지나
이지연 안나레지나

봉헌

김민정 세라피나
이상홍 스테파노
나혜정 지나
윤 루시아
황 안드레스
연령희
김윤수, 이승재
민완준 필립보

성모회
성모회, 정미자릿다
김지영 유스티나
이 아오스딩
백영희 올리아나
백영희 올리아나
이 안나
정희자 리드비나
이지연 안나레지나
박지영 에스텔

◆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4,290
감사헌금	\$ 110
합 계	\$ 4,400

교무금 :

이은주 이정진 신정목 윤복홍 엄기섭
유진 이병국 손명희 김성모 김행자
이경자(벨) 안상민 김인숙 김택영 이규완
린다김 송명자 김미화 윤동진 노혜영
구달회 김애희 김창훈 최우석 이경숙 김계현
선명희 박종섭 양미숙 정제임스 노승후

감사 헌금 :

유서현 박상일